

NH-Amundi

시장 전망 & 추천 상품

June No.113

작성기준일 : 2026년 5월 31일

NH-Amundi자산운용 준법감시인 심사필 제2026-0768(2026.06.09.~2027.06.08.)

 NH-Amundi자산운용

Contents

시황 및 추천펀드

- CIO 칼럼
- 국내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 국내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 해외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 해외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CIO 칼럼

KOSPI 8,000! 이제 다 왔나요?

종합주가지수가 꿈의 숫자로 여겨지던 KOSPI 8,000포인트를 돌파했습니다. 1년 전인 2025년 6월 1일 증가 2,338포인트와 비교하면 약 242% 상승한 수준입니다. 지수가 새로운 지평을 열 때마다 시장 참여자들의 마음속에는 환호와 함께, '과연 이 상승세가 지속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깊은 의구심과 두려움이 교차하기 마련입니다. 특히 이번 랠리를 최전선에서 견인한 것이 다른 아닌 대한민국 증시의 중추인 메모리 반도체 섹터였고, 과거 반도체 사이클의 높은 변동성에 대한 경험이 있기에 고점 시그널에 대한 논쟁은 그 어느 때보다 뜨겁습니다.

지금의 KOSPI 8,000은 단순한 유동성 랠리나 단기 과열의 결과가 아니라, AI 패러다임과 대한민국 제조 경쟁력이 결합하며 나타난 구조적 변화의 산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전통적인 실리콘 사이클(Silicon Cycle) 관점에서 보면, 공급 과잉과 수요 둔화를 걱정해야 할 시점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의 상승 동력은 범용 컴퓨터나 스마트폰 교체 수요가 아니라, 전 세계 시가총액을 좌지우지 하는 미국의 이른바 '빅테크 7(Magnificent 7)' 기업들의 파괴적인 데이터센터 투자 확대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최근 발표된 미국 주요 빅테크 기업들의 연간 자본지출(CAPEX) 가이드를 합산해 보면 그 규모는 가히 압도적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알파벳(구글), 메타, 아마존, 애플 등 주요 기업들의 올해 AI 관련 설비투자 규모는 8,00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는 전년 대비 30~40% 이상 증가한 수준입니다. 엔비디아의 젠슨 황 CEO 역시 2030년 AI 인프라 시장 규모가 4조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는 현재의 AI 투자가 아직 초기 단계에 있음을 시사합니다.

더 중요한 점은 지금까지의 AI 혁명이 시작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AI가 소프트웨어와 디지털 영역에 머물러 있다면, 앞으로는 휴머노이드 로봇, 산업 자동화, 완전자율주행으로 대표되는 '피지컬 AI' 시대로 확장될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데이터센터, 반도체, 전력망, 네트워크 등 AI 인프라 수요는 지금보다 훨씬 더 큰 폭으로 증가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KOSPI 8,000은 이처럼 제조업 전반의 하드웨어 패러다임이 가치 재평가(Re-rating)를 받는 과정에서 도달한 지점이며, 피지컬 AI의 본격 개화는 이 고점을 단단한 바닥으로 만들어 줄 것입니다. 다만 낙관론만으로 시장을 바라볼 수는 없습니다. 첫째는 금리의 향방입니다. 중동전쟁과 AI 투자 붐으로 인해 글로벌 전력 인프라, 원자재, 핵심 장비 수요가 동시에 폭발하면서 구조적인 공급망 병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적인 '인프라 발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수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금리 기조가 예상보다 장기화되거나 추가적인 금리 상승 압력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는 빅테크 기업들의 '수익성 검증(ROI)' 문제입니다. 현재는 인프라 선점 경쟁이 진행되고 있지만, 시장은 결국 "막대한 투자 대비 실제 수익이 얼마나 발생하는가"를 평가하게 될 것입니다.

KOSPI 8,000이라는 숫자는 우리에게 자부심을 주는 동시에, 한편으로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와 정교한 포트폴리오 조정을 요구하는 경고등이기도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리스크 요인들로 인해 시장은 언제든지 숨 고르거나 깊은 변동성을 보일 수 있습니다. 당사 운용팀은 단기 시장 변동성에 흔들리기보다 기업의 펀더멘탈과 글로벌 AI 투자 흐름을 면밀히 점검하며, 다가올 피지컬 AI 시대의 수혜 기업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리스크는 분산하고 시대의 성장은 적극적으로 포착하는 운용을 이어가겠습니다.

박진호 부문장

NH-Amundi자산운용 주식운용부문 총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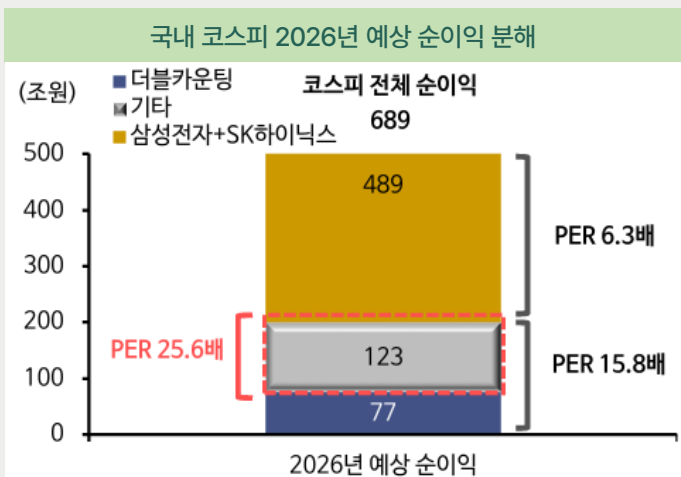
국내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전망

역사적 통계에 근거한 5월 계절성 조정 우려(Sell in May)를 무색하게 할 만큼, 이달 KOSPI는 일시적 변동성을 극복하며 강한 하방 경직성 속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그 중심에는 반도체를 필두로 한 IT 섹터의 압도적인 독주가 있었습니다.

AI 밸류체인 과열 우려에도 불구하고, 극단적인 쓸림 장세는 정점을 예단하기 어렵고 예상보다 장기화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KOSPI 밸류에이션은 반도체 업종 주도의 가파른 어닝 개선으로 여전히 부담스럽지 않은 수준입니다. 다만,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를 제외한 KOSPI 12개월 선행 PER은 25.6배 수준으로, 시장 전반의 밸류에이션 부담 역시 상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6월에도 주도주 랠리의 상방 모멘텀을 전술적으로 향유하되, 매크로 변수(인플레이션과 금리 상승)를 경계할 필요가 있습니다.

6월은 글로벌 매크로 환경의 단기 변곡점이 될 전망입니다. ECB의 통화정책 결정을 시작으로 BOJ의 추가 긴축 가시성 등 글로벌 금리 상방 압력이 자산 가격의 단기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임 연준 의장으로 취임하는 케빈 워시의 초기 스탠스를 예의주시해야 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금리 인하 압박에도 불구하고 미 국채 금리와 인플레이션 압력이 고개를 들고 있어, 워시 의장이 취임 초기부터 완화적 시그널을 보낼 경우 기대인플레이션이 재차 상승할 위험이 존재합니다. 따라서 워시 의장은 중앙은행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초기에 의도적으로 매파적 스탠스를 연출하며 시장의 허를 찌를 개연성이 있습니다. 아울러, SpaceX 상장에 따른 기존 주도주의 차익실현 압력과 수급 분산 효과가 글로벌 증시에 미칠 영향 역시 주목해야 할 변수입니다.



* 출처 : 신한투자증권 (2026년 5월 22일 기준)

추천 펀드

NH-Amundi 성장 중소형주 증권투자신탁(주식)

1 2 3 4 5 6

위험등급 1등급
(매우 높은 위험)

[투자 포인트]

1. 코스닥 포함 중소형주 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와 정책적 지원



기관 유입
촉진

- ▶ 정부주도 150조원 규모 국민성장 펀드 조성
- ▶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주요연기금 참여 유도



세제 혜택
확대

- ▶ 코스닥벤처펀드 세제혜택 연장
- ▶ BDC 투자 시 세제 혜택 적극 검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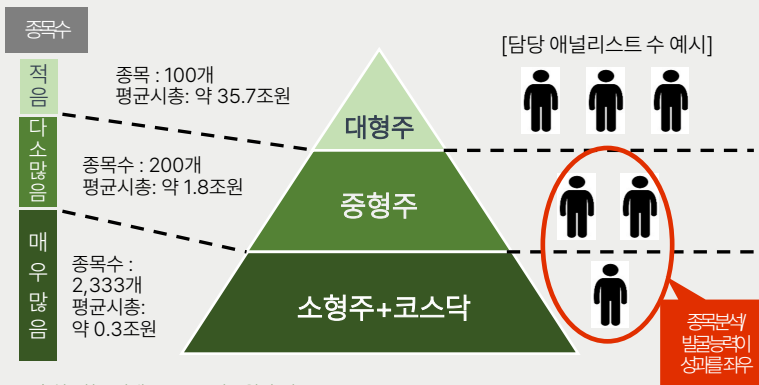


투명성
강화

- ▶ 심사 강화를 통한 신규 상장 및 폐지 신속화
- ▶ 승강제 도입을 통한 선의의 경쟁 유도 촉진

* 출처 :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2. 투자자의 관심 부족으로 저평가된 유망 종목이 다수 존재하는 중소형주 시장



* 출처 : 한국거래소(2026년 3월말 기준)

3. 다수의 중소형주 분석 인력 등 전문적이고 체계화된 리서치 조직을 활용하여 유망 종목 발굴

| | | | |
|------------------|------|------------------|------------|
| 국내주식 운용역 & 애널리스트 | 20 명 | 기업 담당자 면담 횟수 | 연 1,100 건 |
| 중소형주 분석 인력 | 6 명 | 일반 기업 리서치 보고서 작성 | 연 300 건 이상 |

* 2025년 12월말 기준

[펀드 정보]

| 펀드 유형 |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 | |
|-----------|------------------------|------|------|-------|
| 종류(Class) | A1 | C | C-P1 | C-P2 |
| 선취수수료 | 1% 이내 | - | - | - |
| 환매수수료 | 없음 | | | |
| 판매보수 | 0.9% | 1.5% | 0.8% | 0.78% |
| 운용보수 | 0.54% | | | |
| 기타보수 | 수탁 0.03%, 사무관리 0.015% | | |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내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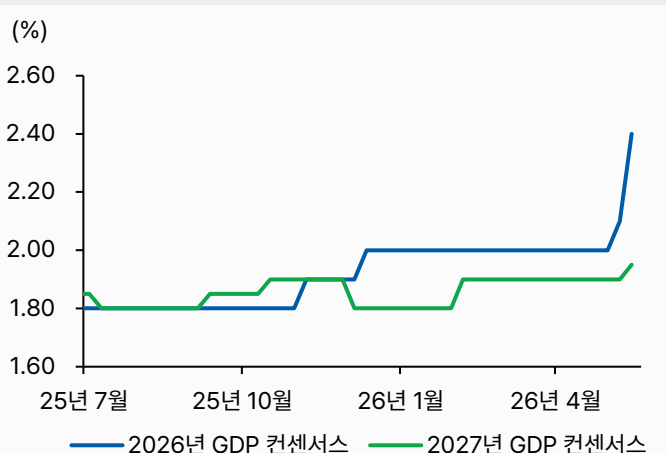
5월 국고채 금리는 한국 성장률 전망치 상향 조정 속 한은 주요 인사들의 금리 인상 시사 발언, 중동전쟁 불확실성 확대에 따른 유가 상승세, 인플레 우려 장기화, 주요국 재정 건전성 우려에 따른 금리 급등 영향 등으로 전월 대비 상승 흐름을 보였습니다. (5/20일 기준 국고 5Y 전월말 대비 +20.0bp).

6월 채권시장은 미-이란 전쟁 불확실성 및 주요국 통화긴축 우려에 따른 변동성이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이미 시장 금리는 한은 기준금리 4~5회 인상 가능성을 선반영한 수준으로, 종전 합의 및 유가 안정 전개 시 하락 여지가 더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5월 금통위에서는 금리 동결을 전망하지만, 성장률·물가 전망 상향과 함께 보다 매파적인 기조와 인상 소수의견이 확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올해 성장률 및 물가 전망치가 2.5%, 2.6% 전후로 상향(2월: 2.0%, 2.2%)되더라도 금리에 선반영된 긴축 강도 감안 시, 추가 금리 상승은 제한될 것입니다. 6월 FOMC 역시 물가 경계로 매파적 기조를 강화하겠지만, 연속 인상을 시사하는 것이 아니라면 정책 불확실성 해소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결국 6월 금리는 종전 및 유가 안정 여부가 관건입니다. 유가 급등 위험도 잠재해 있으나, 종전으로 유가 하락 시, 인플레 우려 완화와 과도하게 반영된 인상 우려 되돌림을 통해 금리가 하락할 가능성이 더 커 보입니다. WGBI 편입 후 외국인의 원화채 매수세가 유지되고 있는 점도 긍정적 요인입니다.

2026년 한국 성장률 전망 조정 추이



* 출처 :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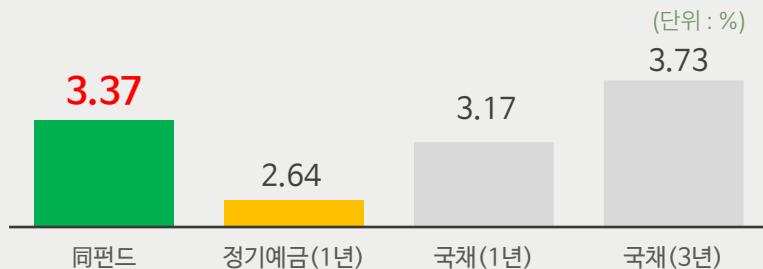
추천 펀드

NH-Amundi 하나로 단기채 증권투자신탁[채권]

1 2 3 4 5 **6**
위험등급 6등급
(매우 낮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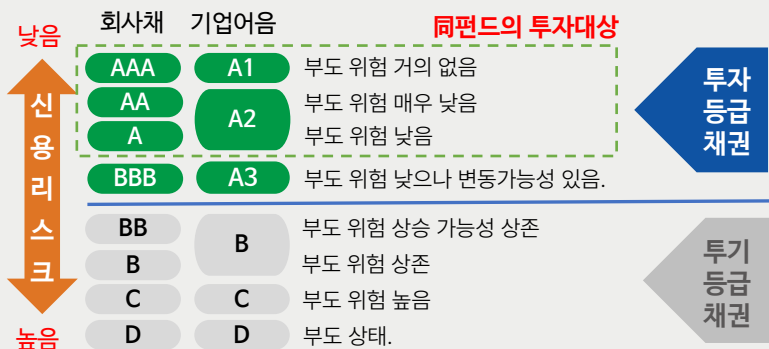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회사채, CP 등에 투자하여 **국채 및 예금 대비 높은 수익률** 추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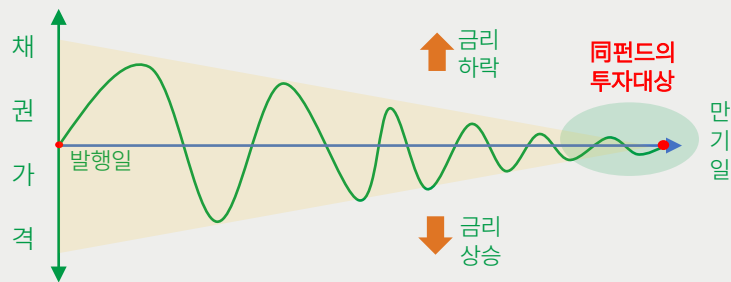
* 정기예금 금리는 은행연합회 공시된 1년 정기예금의 평균금리 사용. 펀드 및 채권은 YTM 기준
* 출처 : 제로인, 은행연합회(26년 4월 30일 기준)

2. **투자등급 이상의 우량채권**에만 투자하는 철저한 리스크 관리



* 출처 : NH-Amundi자산운용

3. 잔존만기 1년 미만 채권에만 투자하여 **금리변동 위험 최소화**



* 출처 : NH-Amundi자산운용

[펀드 정보]

| 펀드 유형 | 증권형(채권),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 | |
|-----------|------------------------|-------|-------|-------|
| 종류(Class) | A2 | C | C-P1 | C-P2 |
| 선취수수료 | 0.3% 이내 | - | - | - |
| 환매수수료 | 없음 | | | |
| 판매보수 | 0.05% | 0.30% | 0.19% | 0.18% |
| 운용보수 | 0.075% | | | |
| 기타보수 | 수탁 0.01%, 사무관리 0.01% | | |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주식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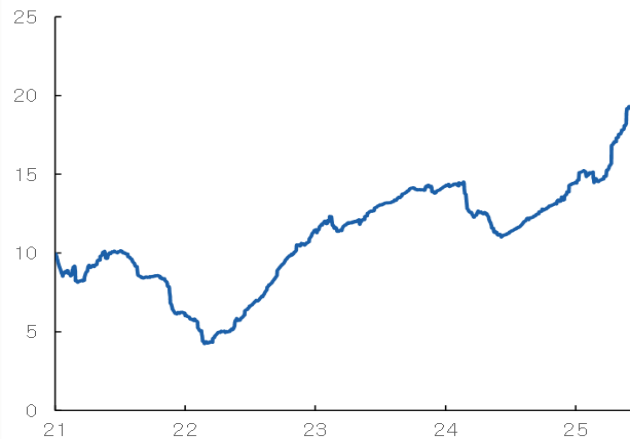
시장 전망

5월 글로벌 주식시장은 반도체와 기술주를 중심으로 또다시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미-이란 전쟁의 휴전 또는 종전을 위한 협상은 계속해서 난항을 겪었지만, 증시는 반도체 기업의 실적과 스페이스X 등 대형 IPO에 대한 기대감에 더욱 집중하는 모습이었습니다. 5월 이동평균선을 따라 급등하던 미국 증시가 월 중반에는 미국의 이란 재공격에 대한 우려, 그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와 채권 장기금리의 급등으로 인하여 조정을 겪기도 했으나, AI 관련 기술주 중심의 탁월한 실적에 힘입어 20일 이동 평균선의 지지를 받으며 월 후반 다시금 상승 추세로 복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일부 테마에 집중된 시장의 폭발적인 급등이 90년대 말 IT 버블 시기를 연상시키며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시에 대한 기대감이 폭발하며 일부 기술주, 특히 반도체 관련주에 상승이 집중되고 있으나, 해당 주식들의 실적 기대감은 주가 상승폭을 넘어서며 밸류에이션에 대한 우려를 잠재우고 있습니다. 유가 상승에 따른 인플레이션 우려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축소되었으나, 트럼프가 지속적으로 협상에 대한 의지를 보이면서 국제 유가는 100달러선에서 추가 급등하지 않고 있으며, 그에 따라 금리의 상승 폭도 제한적입니다. AI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는 계속해서 관련 기업의 실적 기대감을 높이고 있습니다. 6월에도 종전 양상, 인플레이션 우려, AI 관련 기업 실적의 성장률 추이 등에 유의하며 상승장에 참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강하게 상승하는 S&P500 EPS 12개월 성장률 추정치

(%, NTM EPS Growth)



* 출처: Bloomberg, NH-Amundi자산운용

추천 펀드

NH-Amundi 글로벌 우주항공 증권자투자신탁(H/UH)[주식]

1 2 3 4 5 6
위험등급 2등급
(높은 위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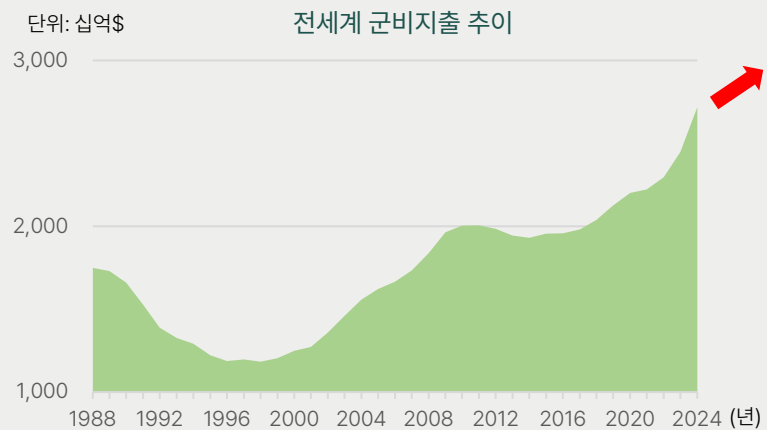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민간의 참여로 전환점을 맞고 있는 우주 산업



* 출처: NH-Amundi자산운용

2. 각국의 군비지출 확대에 따른 우주항공 관련기업의 수혜



* 출처: SIPRI

[펀드 정보]

| 펀드 유형 |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 | |
|-----------|------------------------|-------|-------|-------|
| 종류(Class) | A | Ae | C-P1 | C-P2 |
| 선취수수료 | 1.0%이내 | 0.5% | - | - |
| 환매수수료 | 없음 | | | |
| 판매보수 | 0.70% | 0.35% | 0.85% | 0.80% |
| 운용보수 | 0.80% | | | |
| 기타보수 | 수탁 0.06%, 사무관리 0.02% | | | |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해외 채권시장 전망 및 추천 펀드

시장 전망

5월 글로벌 채권시장은 미-이란 전쟁의 휴전 및 종전 협상이 순탄하지 않게 진행됨에 따라 높은 변동성을 보였습니다. 5월 중순 미-중 정상회담에서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 기대가 있었으나 진전이 없었고, 5월 말에 미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이 가까워졌다는 발언을 하며 시장은 다시 빠르게 종전 가능성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호르무즈 해협 봉쇄는 지속되었고, 미 소비자 및 생산자 물가지표에서 에너지발 높은 물가가 확인되며 글로벌 채권 금리는 전반적으로 상승 마감하였습니다. (미 10년물 +12bp, 독 10년물 -10bp, 일 10년물 +18bp)

6월 글로벌 채권시장은 미-이란 종전 협상에 따라 큰 변동성을 보일 것으로 전망합니다. 5월 말 현재 협상은 막바지에 이르렀다는 외신의 보도가 있었으나, 실제 사인할 때까지는 안심할 수 없으며 최종 합의로 이루지 못한다면 지금까지의 협상은 사실상 큰 의미 없이 유가는 다시 상승할 것입니다. 다만, 미국과 이란 양측의 입장을 고려했을 때 종전이 가장 합리적이며 양측 모두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다소 걸릴 수 있어도 종전이 최종 결론일 것이라 생각합니다. 금리는 현재 수준에서 협상 타결 시 20~30bp 하락할 것으로 예상되며, 협상 지연 시에는 재차 상승 압력이 나타나면서 박스권 흐름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합니다.

이달 추천헤드릴 상품은 글로벌 하이브리드 펀드입니다. 듀레이션이 적당하며, 캐리가 많이 나오는 구조로 휴전 및 종전이 되면 크레딧 랠리가 함께 진행되며 수혜가 예상됩니다.

미국 10년물 VS 독일 10년물 금리 추이



* 출처: NH-Amundi자산운용(주), Bloomber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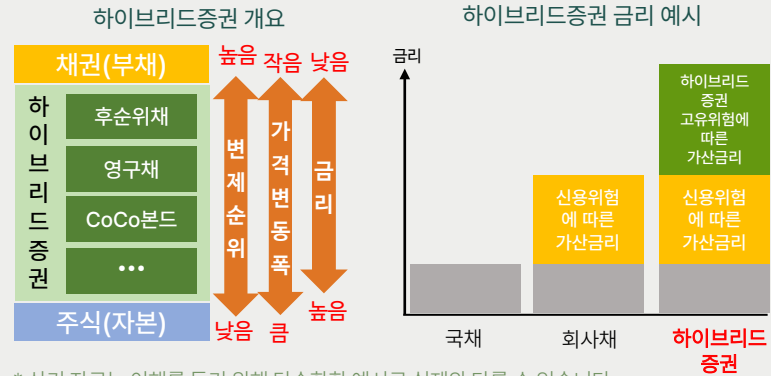
추천 펀드

NH-Amundi 글로벌 하이브리드 증권자투자신탁(H/UH)[채혼-재간접형]

1 2 3 4 **5** 6
5등급(낮은위험)
하이브리드채권(H)
1 2 3 **4** 5 6
4등급(보통위험)
하이브리드채권(UH)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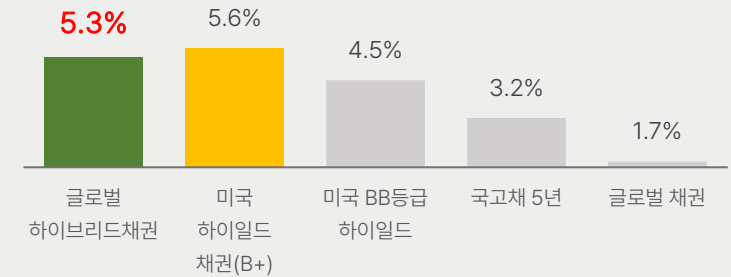
[투자 포인트]

1. 자본과 부채의 중간 성격인 하이브리드증권에 투자하여 **높은 금리 수익** 추구



* 상기 자료는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화한 예시로 실제와 다를 수 있습니다.

2. 타 채권 대비 **높은 환헷지 수익률 "기대"**



*2025년 12월 31일 기준, 해외채권 YTM은 환헷지 후(유로/원 +0.15% 달러/원 -2.28%) 수치
*출처: NH-Amundi자산운용(주), 블룸버그

3. **유력기업만 발행**이 가능한 하이브리드 증권

발행 기관 예시

| 프랑스 전력공사 | 도이치 뱅크 |
|---------------------|---------------|
| | |
| 정부 소유의 프랑스 최대 전력 회사 | 독일 최대의 글로벌 은행 |
| 신용등급 : BBB+(S&P) | 신용등급 : A(S&P) |

* 상기 자료는 투자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로 펀드내 편입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 상기 신용등급은 발행기관의 등급으로, 편입한 채권의 신용등급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펀드 정보]

| 펀드 유형 | 증권형(주식, 개방형, 추가형, 종류형) | | | |
|-----------|------------------------|--------|-------|-------|
| 종류(Class) | A | Ae | C-P1 | C-P2 |
| 선취수수료 | 0.8%이내 | 0.4%이내 | - | - |
| 할매수수료 | 없음 | | | |
| 판매보수 | 0.50% | 0.25% | 0.45% | 0.42% |
| 운용보수 | 0.40% | | | |
| 기타보수 | 수탁 0.03%, 사무관리 0.015% | | |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뢰로 함께하는 글로벌 투자 파트너

Your Trusted and Responsible Global Investment Partner

- 본 내용은 정보제공의 목적으로 작성된 것이며 고객에게 수익증권의 매입을 권유하기 위하여 작성된 자료가 아닙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와 자료 내 포함된 자료는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본 내용은 신뢰할 만한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어진 내용이나 향후 시장 상황 변경으로 전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보호되지 않습니다.
- 과거의 운용 실적이 미래의 수익률을 보장하는 것은 아닙니다.
- 구성 종목은 시장 상황 및 운용 전략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비용, 기타비용 등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종류형 펀드의 경우 종류별 집합투자증권에 부과되는 보수, 수수료 차이로 운용실적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집합투자증권은 자산 가치 변동, 환율변동, 신용등급 하락 등에 따라 투자원금의 손실(0~100%)이 발생할 수 있으며, 그 손실은 투자자에게 귀속됩니다.
-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시기 전에 투자대상, 보수, 수수료 및 환매방법 등에 관하여 (간이)투자 설명서 및 집합투자규약을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 금융상품 판매업자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자는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기 바랍니다.
- 투자 국가의 시장, 정치 및 경제상황 등에 따른 위험으로 자산 가치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과세기준 및 과세 방법은 향후 세법 개정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